‘후후한 교사, 꿈틀거리는 아이들’

가정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충일교회 가정예배부

설교

여러분, 심부름 해본 적 있죠? 쉬운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은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되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신다는 걸 알고 있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해."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갔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는 화를 냈어요. "여호와가 누구길래? 절대 안 된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일을 두 배로 어렵게 만들었어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화를 냈어요. "당신 때문에 더 힘들어졌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다.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구해낼 거야." 모세는 걱정했어요. "제 말을 아무도 안 들어요. 저는 말도 잘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계속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처럼 우리도 부르세요. 모세는 말도 잘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모세가 "저는 할 수 없어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형 아론도 보내서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힘과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어리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용감하게 나아가세요. 친구 도와주기, 부모님께 효도하기도 모두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예배 순서

사 도 신 경	.....	다 같 이
찬 송	예배하는 시간 속에	다 같 이
말 씀 봉 독	출애굽기 6:2~13절	다 같 이
설 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설 교 자
말 씀 나 눔	.....	다 같 이
합 심 기 도	.....	다 같 이
축 복 기 도	.....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 기 도 문	.....	다 같 이

★ 찬송과 축복 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찬 양

예배하는 시간 속에

☚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

축복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려울 때나 무서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친구들을 도와주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하나님의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용감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나눔

1.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이었나요?

2.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용기 내어 해 볼 수 있을까요?